

[바둑]

박지은·이민진·이하진·김세실·이슬아

한국 바둑 '여전사 5인방' 떴다

정관장배 태극마크 달아

정관장배에 출전한 한국여전사 5명이 확정됐다.

지난 3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6회 정관장배 최종예선 결승전에서 박지은은 8단, 이하진은 3단, 김세실은 2단, 이슬아 조단이 각각 승리, 제6회 정관장배에서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한국은 5회 대회에서 맹활약한 이민진 5단이 주최측 시드를 받음에 따라 예선을 거쳐 4명의 기사를 선발했다.

정관장배는 3회 대회부터 단체전으로 기전방식이 바뀌었다. 종국이 두차례 패권을 가져갔으나 지난해 열린 제5회 대회에서 이민진 5단이 기적 같은 5연승을 거둠에 따라 여자 단체전 사상 첫 우승의 금지탑을 세웠다.

한국인삼공사가 후원하는 정관장배는 한·중·일 각국 선수 5명이 연승전 방식으로 대국한다.

제한시간은 1시간 60초 초읽기 1회이며 우승팀에게는 7천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박지은 상승세 무섭네

원양부동산배 결승 진출 이어

가그린배 여류국수전 8강 올라

박지은 8단이 프로 여류국수전 8강에 진출했다.

박 8단은 지난 4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13회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16강전에서 윤영민 2단을 165수 만에 빙 복제로 따돌리고 8강전에 올랐다.

최근 4연승을 기록 중인 박 8단은 이 승리로 상큼하게 12월 대국 스타트를 끊었다. 박 8단은 지난달 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전 결승전에 진출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박지은은 8단은 8강전에서 김수진 2단과 준결승전 진출을 다투게 된다.

지난 6월 예선전을 시작으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16명의 본선진출자를 가린 제13회 여류국수전은 제11, 12회 때 루이나이웨이 9단이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기 4강 진출자인 루이나이웨이 9단, 조혜연 7단, 이영신 4단, 박소현 2단이 본선시드를 배정받았다.

제13회 가그린배 프로 여류국수전은 예선, 본선, 결승 3번기 모두 제한 시간 각자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로 진행되며, 우승상금은 1천 100만원(준우승 500만원)이다.

홍성지·박정환, 비씨카드배 순항

진동구·강유택 꺾고 16강

홍성지 5단과 박정환 2단이 비씨카드배 신인왕전에서 상큼한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 5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8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본선 1회전에서 홍성지 5단이 진동구 4단을 158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하고 16강전에 합류했다.

이어 열린 대국에서는 박정환 2단이 강유택 16단에게 248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16강에 합류했다.

홍성지, 박정환은 16강전에서

각각 열점훈 6단, 이용수 5단과 8강 진출을 다투다. 흥 5단은 이날 승리로 올해 63승 25패를, 박 2단은 50승 21패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16강 진출자는 김지석 4단, 김기용 4단, 전영규 2단, 권혁진 조단 등 모두 6명이다.

비씨카드배 신인왕전은 연령이나 단위에 관계없이 본격기전 우승 경험이 없는 프로 입단 만 10년 이내의 기사들이 출전하는 기전이다.

우승상금은 2천 500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원성진, 1승만 더 ...

입단 10년째 타이틀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원성진(22) 8단이 무관의 설움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성진은 1985년생 소띠 동년배에서 '송아지 삼총사'로 불리던 최철한 박영훈 9단과 함께 입단 당시부터 '될 성 부른 떡잎'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철한과 박영훈이 후지쓰래, 국수전 등 국내외 타이틀을 여려 차례 획득하며 주가를 올리는 동안 손에 넣은 타이틀이 없는 원성진의 바둑인생은 '2% 부족하다'는 말로 암축됐다.

올해 처음으로 비씨카드배 신인왕전과 함께 마스터즈대회에서 우승, 기자회를 켜고 있지만 본격 기전이 아니어서 우승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에게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타이틀과의 인연은 멀기만 했다. 그동안 신인왕전에서 두 번이나 결승에 올랐지만 2001년에는 조한승, 2006년에는 허영호에게 고배를 머물렀고 신예프로 10걸전에서도 준우승이 최고의 성적이었다.

그가 박카스배 천원전 타이틀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스카이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12기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 5번기 2국에서 강동운 7단을 136수 만에 백 불계로 누르고 2-0으로 앞서나가게 된 것. 남은 대국에서 1승을



입단 10년째 무관 설움

천원전 결승서 강동운 꺾고

타이틀 획득 눈앞에

승을 따낸 뒤 내리 3판을 내주고 역전패했다. 이후 최철한은 수직 상승한 반면 원성진은 잇단 불운에 시달렸다.

국내 랭킹 3, 4위의 박영훈, 조한승 9단도 이 9단 앞에서 절절매는 상황에서 원성진의 활약(?)은 바둑계의 화젯거리가 됐을 정도다.

입단 10년차를 맞아 재도약을 꿈꾸는 원성진이 천신만고 끝에 타이틀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바둑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추가할 경우 그는 꿈에도 그리던 타이틀을 손에 넣게된다. 결승 3국은 11일 열린다.

바둑계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원성진의 낙승을 짚치고 있다. 원성진은 강동운과 최근 대국에서 6연승을 기록하는 등 절대 우위의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원성진의 예사롭지 않은 행마도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성진은 지난달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세돌에게 2연승을 거둠으로써 한껏 물오른 기량을 과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기 원예배 십단전 16강전에서 이 9단을 상대로 17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12기 박카스배 천원전 준결승에서도 이 9단을 물리치고 결승 티켓을 따냈다.

국내 랭킹 3, 4위의 박영훈, 조한승 9단도 이 9단 앞에서 절절매는 상황에서 원성진의 활약(?)은 바둑계의 화젯거리가 됐을 정도다.

입단 10년차를 맞아 재도약을 꿈꾸는 원성진이 천신만고 끝에 타이틀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바둑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제88회 전국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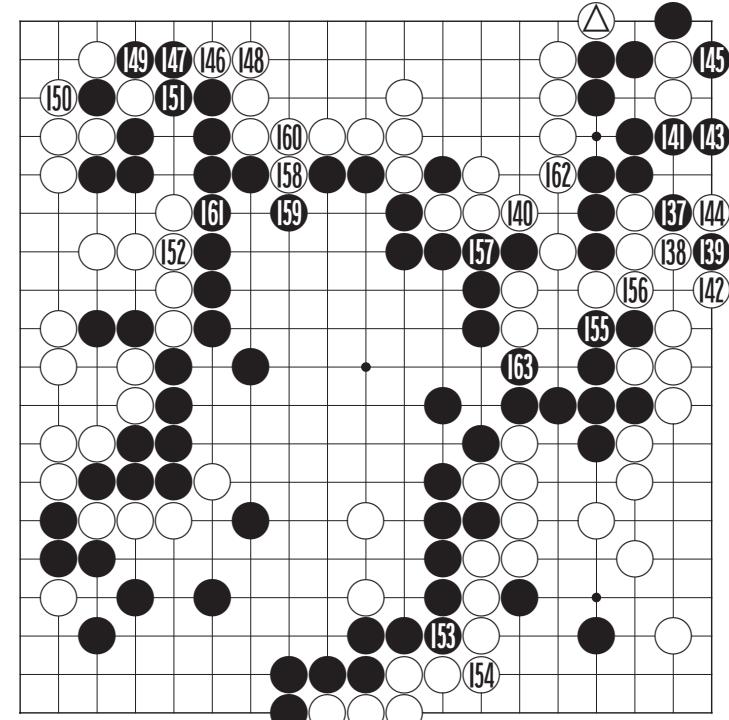
여성 일반부

결승전

白 이수빈 5단
(경기도)

기상천외한 해답

8보(137~163)

黑 조경진 5단
(경기도)

해두고 7로 젖혀 실전처럼 두어야 했다. 이 교환을 하지않은 것이 대실수였던 것이다.

백은 139 8번 140에 밤지 않고 7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었다.

이랬으면 그야말로 눈

터지는 계가바둑으로 역전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수빈 5단이 떻게 바꾼다는데 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145로 7집을 내고 살아서는 흑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아쉬운 순간이다.

<참고도 1>

<참고도 2>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

제12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이 지난달 27일 한국기원 대국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기사들이 대국하고 있다. SK가스배는 예선을 거친 12명

의 신예 기사들이 A, B 두 개 조로 나눠 리그전을 벌여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하는 기전이다. <사이버 오로 제공>

야마시타 9단 日 왕좌전 타이틀 지켜



야마시타 게이코 9단이 왕좌 타이틀을 지켜냈다.

야마시타 게이코 9단이 최근 일본 가나가와현에

서 열린 제55기 일본 왕좌전 도전 5번

기 4국에서 도전자 이마무라 게이

고 9단을 197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했다.

야마시타는 이로써 종합전적 3-1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흑을 잡은 야마시타 9단은 좌상귀, 우상귀, 우상귀에서 훈련한 실력을 차지한 후 중앙 미생마저 빙때림을 얻으면서 타개, 손쉽게 승리를 쟁겼다.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1-1140, 02-101-602-2322
(광주오류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간판)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얕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증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2-972-4585 웨 011-604-8205
(첨단지구 부업 ALC빌딩 사거리)

★ 급매 매 ★

①첨단 인근 비아울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블루창고, 복지 실시설

②첨단동상업지역 1100평 주·상 복합시설화학

★ 임 대

①첨단동로변 제일은행 빌딩 2층 70평 사무실, 병원 창고

첨단월계상가매매

·경기지방법원 제1기 1600평 360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비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통지역 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금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원 원495만 평5억3천원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원 원480만 평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8개 보1억2천만 원180만 평4억1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금매매

·신기동 부업①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증후①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광단 8번지 부근 450평

700평 광장, 창고 창고

·북구 지어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집 기든, 찻집, 창고, 공장 창립

부광공인중개사

☎ 062-654-4520, 010-2629-1718
(백운광장 국제호텔 맞은편)

★ 급매 매 ★

① 천원주택(부지) 전문업소

② 천원주택 단지 분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산림과 청정호수가 있는

화순 서성리의 기능성 천원주택단지

여러분을 주거문화 프리미엄의 VIP로 모십니다